

일주문

원각경 출판 기념법회
일공 원용종 종정은 5일 오전 11시 용산 호텔 캐피탈에서 '법랍 61수(壽) 및 <원각경> 출판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8월 다보법회서 법문
해담 각화사 주지는 22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8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불교의 업사상 강의
일초 前 동학사 강주는 6일 오후 7시 전북불교대학 화엄불교대학 여름 특강에서 '불교의 업사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청소년 성매매 토론회
선일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장 스님은 7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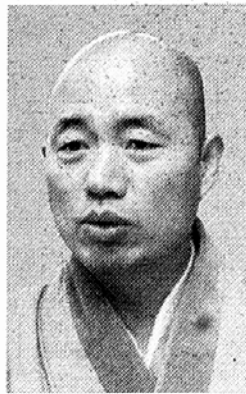
연변대 법학 세미나 참석
고준환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 연변대학에서 열리는 '21세기 법학과제' 세미나 참석차 7월 24일 출국했다.

“달라이 라마 2003년 초파일 재초청”

다람살라 다녀온 방한준비위 대표 성관 스님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국민들이 달라이라마를 법가를 고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세자레나 약속을 어겨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그의 방한을 기대하기에 2003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다시 초청할 생각입니다.”

도사에게 세 번이나 방한 약속(비공식적이었지만)을 반복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에 먹칠을 한 일이었다는 성관 스님은 “1959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경전을 등짐에 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은 후 외롭



티베트 인권상황을 다시금 절감했다는 성관 스님은 난민들을 위해 다람살라에서 성금 1,000만원과 생필품 600세트, 학용품, 대장경CD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경전에 기초해 전통의 학과 천문학, 점성학 등을 고도로 발전시킨 티베트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 경전은 그들의 생활이요 생명을 느꼈다”는 스님은 한 티베트간의 불교문화 교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이나 방한약속 반복 정부 외교 신뢰성 먹칠

난민에 성금·선물 전달

이 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함께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정부의 빈약한 인권정책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중국정부에 의한 티베트인에 대한 인권 및 종교탄압(고문, 투옥 등) 실상을 망명정부로부터 브리핑받고 티베트 난민수용소와 난민임시학교를 방문

이 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함께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정부의 빈약한 인권정책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중국정부에 의한 티베트인에 대한 인권 및 종교탄압(고문, 투옥 등) 실상을 망명정부로부터 브리핑받고 티베트 난민수용소와 난민임시학교를 방문



월정사 '좋은세상 구현 선수권회'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7월 23-26일 월정사 주지 현해,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과 60여 수련생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사람, 좋은 세상 구현' 첫번째 선수권회를 개최했다.



정토회 '자연과 나는 평화이야기'

정토회(지도법사 범문스님)의 산하단체인 불교환경교육원과 좋은벗들은 7월 21-22일 경기도 가평 백운리 자연학교에서 불교환경교육원의 생태선제기행과 좋은벗들의 평화운동을 결합한 '자연과 나는 평화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민주당 복지전학단 소척새마을 방문

소척새마을(원장 현각)은 7월 19일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주당 복지시절 견학단의 방문을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현각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과 함께 불연이 살아야 한다'며 '함께 살아가는 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회당학원 가족제전 5백명 참석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지광) 주최 '제2회 회당학원 가족제전'이 7월 19-20일 양일간 위덕대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전에는 효안 직각종 통리원장, 지광 회당학원 이사장, 경해 이사, 혜명 위덕대 전담임원 등 직각종 스승들과 손제서 위덕대 총장을 비롯한 위덕대, 삼인중·고등학교, 진선여자중·고등학교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요”



입으로 종이학 접는 안명훈 씨
“종이학을 많이 접으면 다음 생애는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원주 소척새마을(원장 현각스님)에는 입으로 종이학, 비행기, 배 등 16가지의 모양을 접는 안명훈 씨(22·뇌성마비 1급 장애) 인가 있다. 왼쪽 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 7살 때부터 입으로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다. 지금은 신기할 정도로 정밀하게 잘 접는다. 총주에서 특수초등학교를 나온 덕택에 한글을 깨친 그는 17세부터 틈틈이 400편의 사를 써 가족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는 지난 달 SBS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 이제 펜 테터도 받는 스타가 되었다. “종이를 가져주는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는 그는 다음 세상에 32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의 몸으로 태어나길 발원한다. 원주=김재경 기자

2001학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중무행정 고위자과정반 (6기생) 모집 안내

Recruitment notice for Buddhist Administrative Officer Course (6th semester) at Hanyang University. Includes details on application period,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2001년도 하반기 정토통신대학 개강 (2년제)

Recruitment notice for Jeongto Buddhist Communication University (2-year program). Includes details on curriculum, fees, and application procedures.

2001년도 하반기 정토통신대학 개강 (2년제)

Recruitment notice for Jeongto Buddhist Communication University (2-year program). Includes details on curriculum, fees, and application procedures.